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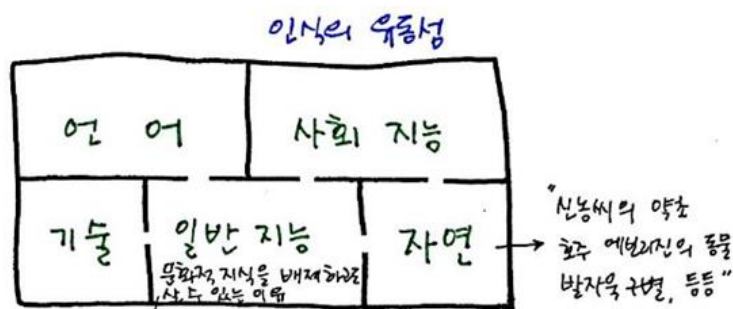
# 제 1회 1313년 우주의 진화

## 12강 인지 과학, 몽골 역사

몽골에 대해 이야기 해 보라.

이름을 말해 보라. 없다. 몽골기에 말하지

못한다. 지식속에 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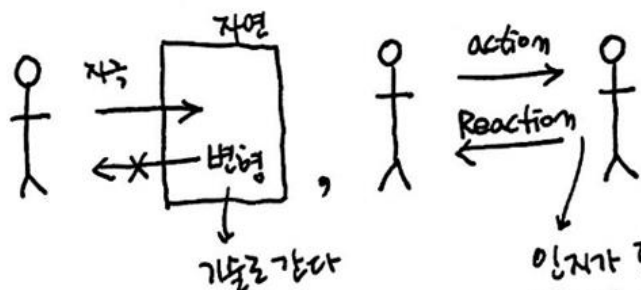


- 스티브 미논의  
"마음의 역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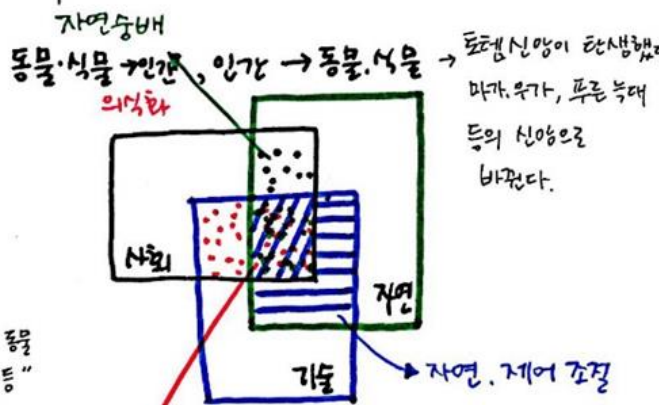
나일강의 약어는  
아마존에서 살기 어렵다. 인간은 기복  
지능으로 어떤 장소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부작용에 목걸이가 나오고, 벽화는 호모사피엔스가  
만들고 그려냈다. 목걸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지능으로  
가공 기술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마음을 아는 사회지능과  
의사소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목걸이 하나에도  
여러 지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언어지능이 탄생하기에 세상을 바꿀 수 세치라이트  
기능을 만들었다.



자연에 복응하면 답은 없다고 하는  
↑ 의식화는 몽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축화와 벼농사 등이 탄생



사.자.기

→ 문유: 예술, 종교, 과학

flute: 3만 6천년

후기 카작기 문화 대폭발

카작기는 120만년 → 1만년 정도까지이다.

3만년 정도에 후기 카작기 문화 대폭발

종교는 4만년을 넘지 않는다.

사회, 기술, 자연이 같이 접목되며 종교가 탄생한다.  
인식의 유동은 융합 융합 현상이다.

언어의 만능하자. 지하철에 써 있는  
"시"를 음미하는 사람을 볼적이 있는가?  
스크린 도어의 써 있는 언어에 만능하면  
환상적 사고가 확장될지.

→ 사람이 사람에게 자극을 가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고 대처해야 한다.  
거짓말, 속임수, 칭찬, 아부 등등의  
가공의 세계를 확장시켜야 하겠다.

쿠빌라이 상도에 머물며 직무를 해방했다. (청나라의 상도는 명나라(여를 징구) 원나라의 정부를 보던 곳이 상도이다.) 쿠빌라이가 게가 아적부케  
 도곤 테무르 → 아유시리다르 → 토카스 테무르 → 에드데르 → 멘케 → 엘베케  
 대정도 쿠방, 기왕후 1387 (토카스 테무르) 5독하 4명  
 1388. 5 ← 위화도 환관: 조선 정국 1388. 5 ← 위화도 환관: 조선 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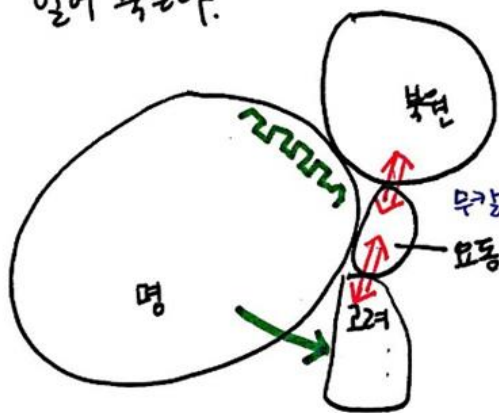
→ 타이순 → 만도룬 → 다만 → 쿠비락: 오르도스  
 도곤 타이시 에센 타이시 명나라 명종 생포 토목보변  
 이 때 당시 에센 타이시는 징기스칸의 환관을 만났하려 하였다. 양날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돌하이 카툰이 징기스칸의 폐를 통해 몽골을 복종하려 한 것이다.  
 만돌하이 카툰 (바투 몽케) 징기스칸의 이름을 대서 세웠다. 만돌하이 카툰을 노려한 교양시를 보지 않게 하는 몽골 여성은 없다. 거의 여자 징기스칸으로 불리었다. 아들 7명을 낳고, 천천 4명까지 11명이 몽골의 칸이 되고 명나라의 기를 마련한다. 몽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기스칸은 우리네 사람이 우리 역사속 영웅을 다 합친 것과 같다. 징기스칸 이름 하나로 몽골 역사 800년을 이끌었다. 만도룬 칸이 젊어서 죽고, 만돌하이 카툰은 징기스칸 제제를 찾았다. 그러다 작은 사람이 바투몽케이다. 바투몽케가 살 때 칸이 되었다. 그가 "다만칸"이다.

쿠빌라이: 파스파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로 몽골이 쿠비라이라 칭함  
 알란칸: 소남가초 달라이라마 3세  
 스승에게 이름을 선사한다. 그 이름이 달라이라마이다.  
 쿠비칸: 룬상가초 달라이라마 4세

1588: 달라이라마 3세 졸 -6: 알란칸 졸  
 알란칸이 소남가초는 네몽골 줄기가 포획했다. 그 후 1800년 티벳 북쪽의 절이 생겼다. 몽골의 부흥을 위해 네몽골에서 죽고, 달라이라마 4세는 몽골에서 태어난다. 그가 알란칸의 손자이며, 종교와 왕권이 엮이는 사건이다.  
 잔나바자르의 계르가 있었던 이란 회리가 된다. 울란바토르가 된다. (1889년) 일반: 2,000명 라마당: 14,000명 (1대 법왕이 된다.)

아브라카 사인칸 → 곱보도르지 → 잔나바자르  
 에드데르 재수원 1585  
 곱보도르지 2 → 자바트, 세첸칸  
 몽골의 달라이라마 4세 잔나바자르가 된다.

북방민족을 정주민족이 침략을 할 때 북방민족은 북쪽으로 도망을 쳤다. 도망치는 적을 쫓다 보면 북쪽의 형편에 도달한다. 그 후는 기록이 많은 후원이 침략군을 찾아준다. 동장군에게 당해 얻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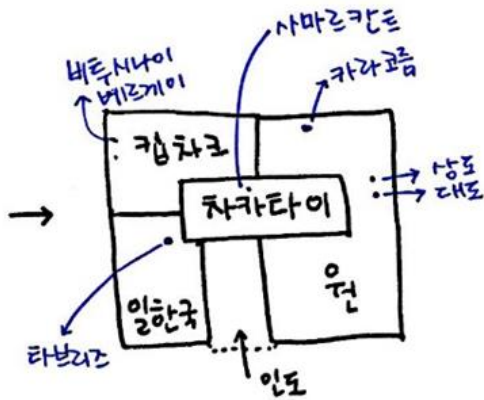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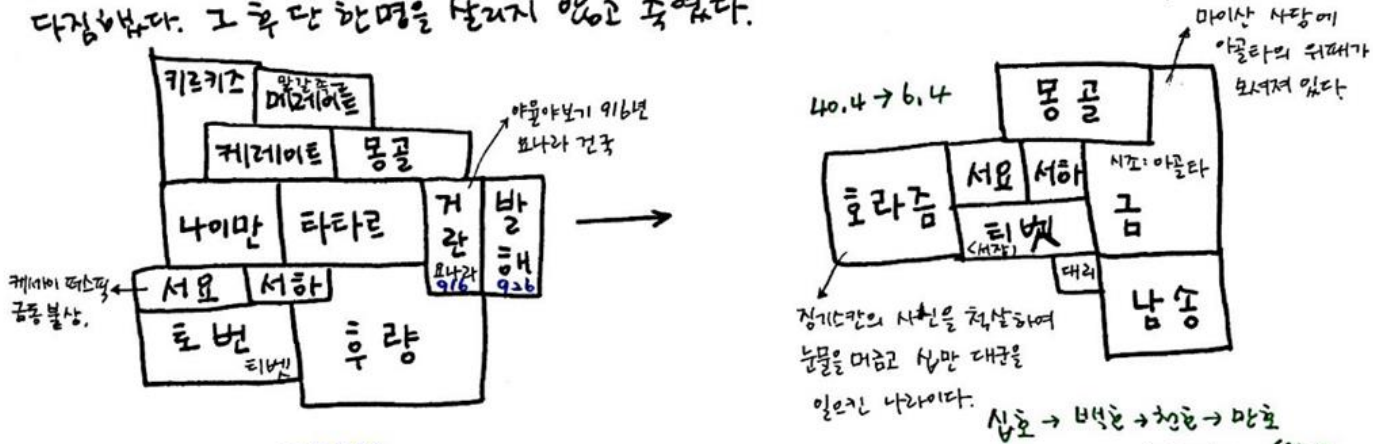
→ 쿨루부르에서 무칼리의 혼자를 기다리던 에드데르의 혼자에게 공격을 당한다. 국원장의 압박과 무칼리의 명나라 후방으로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 시대적 상황을 읽은 이상계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라를 세웠다.

처음 장군이 입을 당시 고려는 명나라의 압박과 북원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명의 처세장은 무칼리를 확보하여 북원과의 고리를 끊었다. 이때 처영은 요동정벌을 주장하였다. 그래야 명의 교역을 끊고 북원과 연결 가능하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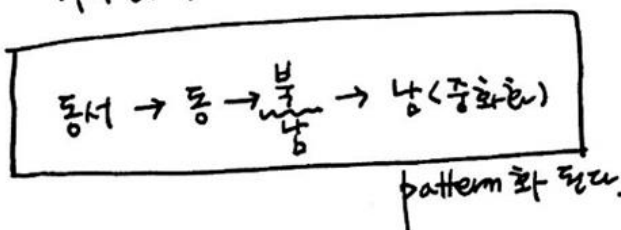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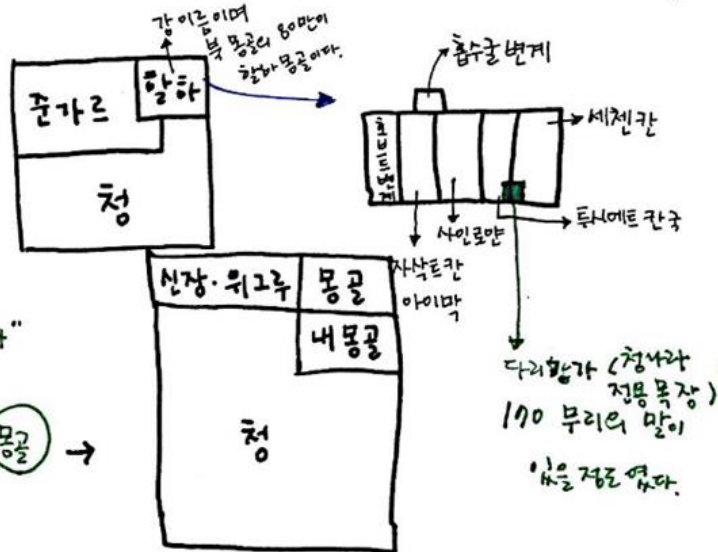


몽골은 부족 이름이며 동시에 나라 이름이다. 이름의 시작은 미숙데르 때 부터이다.

서하는 징기스칸이 죽은 후 3일 후 멸망 당했다. 호라이즘 정벌 때 원병을 보내지 않아 정벌을 다짐했다. 그 후 단 한명을 남리지 않고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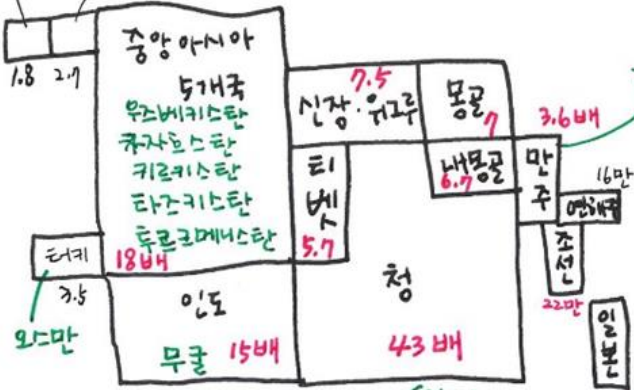
홀레카가 바그다드를 함락시킬 때 십만명 이상을 죽인다. 그 때 바그다드에 목욕탕이 만 개가 넘었다 한다. 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나라에 일어난 (358년의 대악살이다. 이 예세를 모아 홀레카는 에집트를 공격했으나 동쪽쪽 옥에인 후려의 노예에게 몽마이 왕조에 처절히 박살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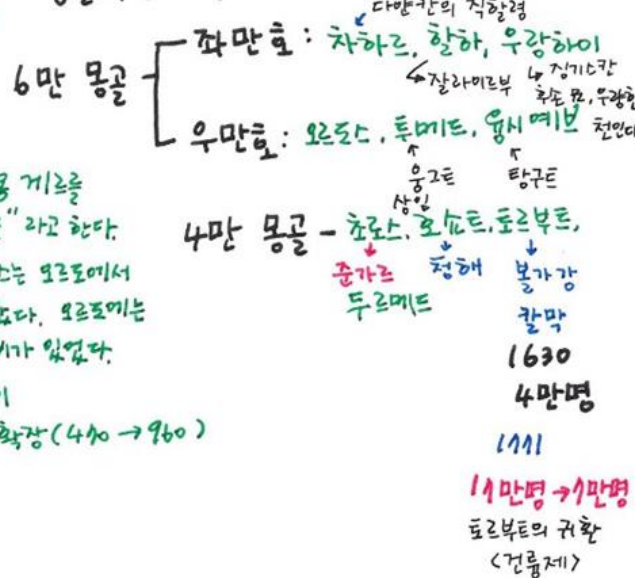
몽·서로 갈라지고, 동은 북으로 갈라진다. 그 후 남쪽은 중화화되어 사라진다.

한반도 22만 km<sup>2</sup> 을 1로 보았을 때 중국 43, 내몽골 6.7, 몽골 1배, 티벳 5.7, 신장 위구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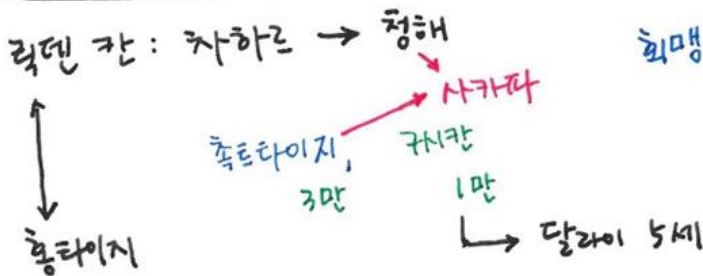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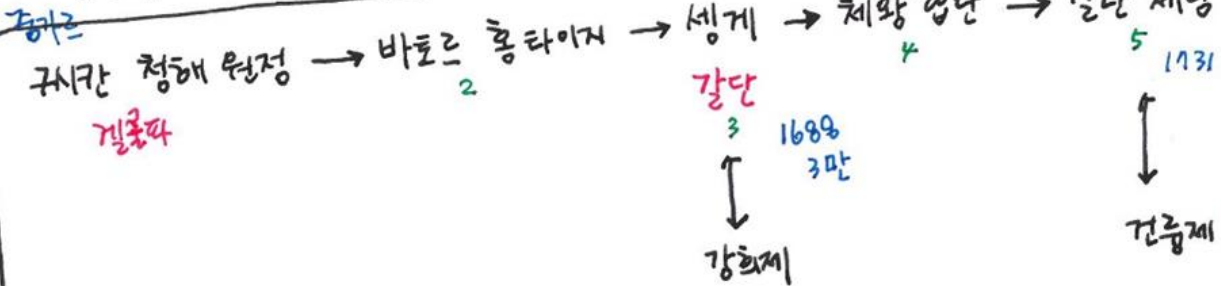
폴란드-헝가리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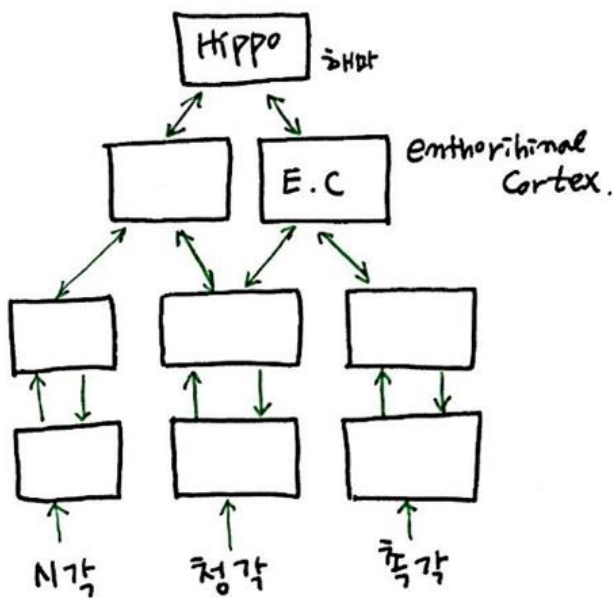
몽골사는 세계사의 40%이다.



역사가 암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몽골의 대해 말할 때 이해와 창의성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지식에 없는 역사를 어떻게 꿰뚫을 수  
있는지 말해 보라.



- 1691 → 갑단 조
- 1722 → 강희제 조
- 25 → 몽골 조
- 29 → 체왕갑단 조



일반, 느림  
↑  
세부 빠름

패턴 시열  
불변 표상  
자동 연상 회상  
next element 회상

패턴 시열, 시열은 순서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하나의 pattern이 다른 pattern과 연결된다.  
Hippocampus에 연결된 기억은 무한대이다.  
Hippocampus로 물릴 때는 어떤 단어가 올라간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풀이 하기까지 기억이  
들어간다.

$$4 \times 3 + (1 + 3 + 5 + 3) = 24$$

$$95 - 24 = 71 \quad 95 \rightarrow 206$$

풀이 (막히기까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칸이 많이 나왔다.

$$34 + 95 = 129, 1227$$

거라족

장게산에 비인 세라지 거라족이다. 우12주

부려 제공. → Brain 제공.